

유태영(특수분장사, 나무워크샵 대표)

특수분장사는 배우를 새로운 인물로 탄생시킨다



특수분장이 공포물에 많이 사용되므로 시체모형과 특이한 보형물들이 많을 줄 알았던 작업실에 각종 공구와 시약들이 즐비하다. 사무실에는 특수분장에 관련된 다양한 서적들이 빼곡하게 책장을 메우고 있다. 특수분장은 여기 책에서 나온다.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내기 전까지 재료의 특성, 작동 원리, 환경에 따른 변화, 인체 접촉시 무해함 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특수분장은 이론적 바탕부터 미적 감각에 공학적 마인드까지 종합적으로 필요한 분야다.

특수분장을 바로 알자

특수분장은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과정이에요. 특수분장의 정확한 개념은 실제 배우의 신체에 입체적인 분장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몸을 뚱뚱하게 보이기 위해 신체에 직접 보형물을 붙인다든지, 칼에 베어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게 만든다든지, 치아에 빠졌어진 보형물을 부착시켜 특이한 얼굴형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처럼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분장이 진정한 특수분장이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체모형이나 보조보형물들도 캐릭터를 만든다는 개념에서 특수분장의 한 부분이지만, 특수분장의 꽃은 배우의 신체에 직접 입체적인 감각을 입혀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죠.

특수분장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

특수분장사는 미술을 전공하던 시절에 '미세스 다웃파이어(1993)'라는 영화를 본 후 직업으로 선택하게 됐어요. 영화에서 남자배우가 할머니로 분장하고 나와서 천연덕스럽게 연기하는데 그 변화된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배우가 분장을 통해서 새로운 캐릭터로 창조된다는 것이 단조로운 일상에서 새로운 자극이 된 거죠. 그 자극이 원동력이 되어 특수분장사의 길을 걷게 됐어요.

특수분장사의 매력

직업적 매력이라면 자신의 작업에 대한 만족과 뿌듯함일 거예요. 영화에서 직접 작업한 부분을 찾으며 행복하고, 작품이 끝난 후 올라가는 크레딧 사이에서 이름을 보는 순간에 감동이 밀려와요.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 특수분장을 배우는 과정에서 '짐(1998)'이라는 영화에 공동 작업을 했을 때예요. 올라가는 크레딧 사이로 보이는 이름에서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재미를 느꼈어요. 일에서 오는 만족과 뿌듯함이 최종에는 감동과 재미로 배가되어 돌아온다면 정말 좋은 직업 아닌가요. 자신의 열정을 담아 작업에 집중하고 작품에서 그 진가가 발휘될 때, 특수분장을 직업으로 가졌다는 것이 행복해요.

참여했던 작품과 기억에 남는 작업

광고도 많이 했지만 대부분 참여한 작업은 영화가 많아요. 최근에 참여한 작품으로 '해운대(2009)', '불꽃처럼 나비처럼(2009)', '부산(2009)', '무방비도시(2007)', '트렉(2007)' 등이 있어요. 좋은 기회가 찾아와 여러 훌륭한 작품들에 참여하게 됐어요.

기억에 남는 작품은 '바람의 파이터(2004)'라는 영화로 특수분장사의 이름으로 입문한 첫 작품이었어요. 영화가 최배달을 주제로 하면서 소도 만들고, 팔이 꺾이고, 부러지는 것 등을 다양하게 표현했었죠. 그리고, 장르물이 아닌 '신데렐라(2006)'라는 영화가 있는데, 특수분장이 참여하는 비중이 높았고,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서 즐겁게 작업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람의 신체 중 가장 표현하기 힘든 부위

사람의 어떤 부위보다도 피부색 톤을 맞추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상처가 생기는 과정이나 사용된 도구에 따라 상처부위의 피부색 톤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 정밀함을 기존의 피부와 자연스럽게 일치시켜야 하는 과정은 더욱 어렵죠. 시체모형도 사망원인에 따라 부패의 정도와 피부색 톤이 달라지는데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표현해내려면 어려움이 따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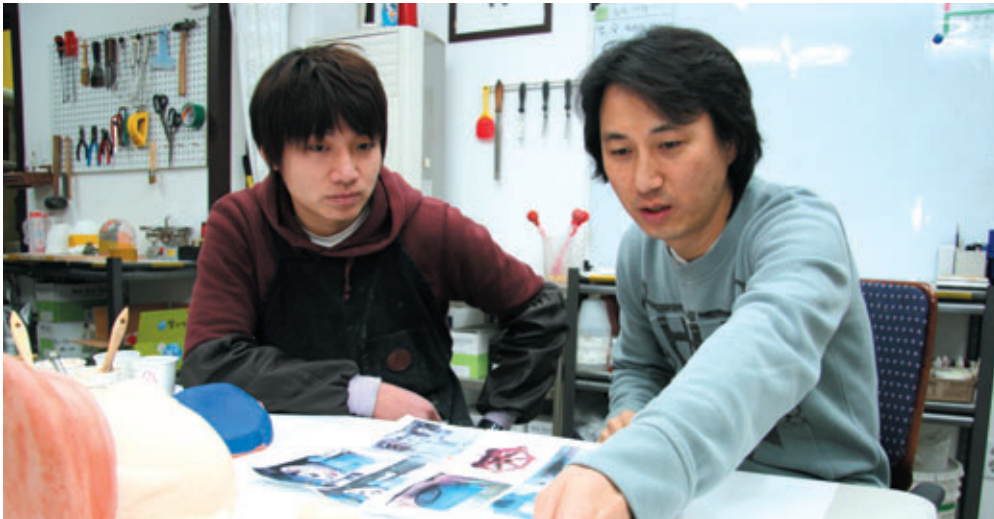
우리나라 특수분장의 수준

우리나라 특수분장의 실력은 할리우드 못 지 않다고 생각해요. 분장을 하거나 보형물을 제작하고, 모형을 움직이게 하는 세밀한 작업까지 우리나라 특수분장팀의 수준은 높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능력을 펼칠 수 있고, 노후를 쌓을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기회마저 빼앗아 갔어요.

국내 영화도 검증되지 않으면 외국 스텝과 일을 해요. 이런 방식으로 매번 국내의 분장사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발전할 수 없는 거죠. 할리우드도 처음부터 잘 했겠어요. 계속되는 시도로 경험이 축적되면서 그들의 방식이 답이 된 거죠.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노력하고 있는 국내 분장사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특수분장사가 되기 위한 조건

특수분장사는 디자인이나 회화와 등 미술과 관련된 전공을 하면 도움이 돼요. 그렇다고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분장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요소로 데생력을 꼽고 싶은데, 사물이나 인물을 관찰하여 특징을 잘 표현해내는 능력은 분장사에겐 축복받은 일이지요. 그래서, 미술적 감각을 익혀두면 일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죠.





첫 발을 내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분장 학원에서 특수분장 과목을 가르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외국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현업을 하고 있는 기획사에서 현장업무를 직접 배우면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여러 방법 중 선택은 자신의 몫이지만, 중간과 먼 미래를 본다면 학원을 다니면서 기초를 다지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좋아요. 현장에 바로 투입되면 걸음로는 빠른 듯 보이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초가 튼튼한 사람들이 위기도 잘 넘기고 나중에는 더 빠르게 성장해요. 목표를 갖고 노력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예요.

작업 중 에피소드

특수분장을 하는 팀들은 공통적으로 겪는 일인 것 같은데요. 영화 '아기와 나(2008)'를 작업할 때 생긴 일이에요. 영화 스토리 전개상 아기가 다칠 수 있어 실제 아이와 얼굴표정부터 신체 크기까지 거의 일치하게 만들었어요. 촬영을 위해 아기모형을 투명 유리관 속에 보관해 촬영장소로 이동시켜 촬영시 아기모형이 필요할 때 바로 투입시키려고 미리 꺼내서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구경하던 마을 아주머니들이 아이를 바닥에 방치해 놔다며 한바탕 소동이 났어요. 아주머니들은 진짜 아이인줄 알았던 거죠. 이것 말고도 시체모형도 많이 실고 다니는데, 우연히 모형을 보고는 저희를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해요.

앞으로의 바람

큰 바람은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특수분장사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기를 바래요. 우리나라는 영화시장이 좁아 투자자들의 수익에 한계가 있어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런 환경 속에도 영화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발전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주라기 공원', '킹콩', '반지의 제왕'처럼 특수분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나고 싶어요.

개인적인 바람은 특수분장에 관한 정보가 서울에만 한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의 학생들을 위해 지방에서도 특수분장을 배울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하고 싶어요. 배우의 기회가 커지면서 특수분장의 기술력도 더욱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